



卞 珍 義

서양화가 한양대학교 강사

아파트 구조에 대한 助言

상 파울로는 참으로 거대한 도시다. 언뜻 보기에 어수선한 감이 있지만 유럽에서 처럼 문화적 우월성으로 소박한 동양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아 살기에 마음이 편한 도시다.

주소만 보여주면 어느곳이 됐든 택시 운전사가 집을 찾아 줄 수 있는 도시의 구조라든가 슈퍼마켓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마다 대규모 시장(오전장)이 서서 싱싱하고 싼 야채와 과일, 생선등을 구입할수 있는 점, 지하철 역마다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힘없는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곳이다.

더구나 대도시임에도 아파트구하기가 쉽고 임대료도 싸며, 그 내부 구조와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사소한 불만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혼후 줄곧 개인주택에서만 살다가 일년 반 정도 상 파울로에 가 있게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돌아 와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곳과 이곳의 아파트들을 비교하게 되는 바, 이곳의 아파트들의 형태와 재료의 확실성은 지나친 감이 들며, 정말 얼마큼 주민을 위해 설계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건설회사나 건설주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근시안적인 설계를 유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건축가들의 발달한 창의성이 부족한 때문이었을까? 대개의 아파트들은 그 입구부터 답답하고 조잡한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좁고 어둑하며 건조한 분위기의 입구는 사람을 정답게 맞이하고 보내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상 파울로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 다녀 보았는데 한결같이 입구에서 기분 좋게, 밝게 사람

을 맞아 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아파트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처럼 상반된 느낌을 갖게될까 생각해 보았다.

아파트의 일층은 살기에 여러모로 불리하고 적합치 못한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그 일층을 주민 전체를 위한 모임의 장소, 간편한 실내운동, 휴식 장소로 설계되고 제공할 수는 왜 없었을까?

구획지고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이기에 더욱 누구나,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 오픈 스페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피곤한 기분으로 돌아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으로 휙 올라가 버리는 것보다 아파트 일층이 공동의 거실로 잘 꾸며져 있다면, 엘리베이터 옆에 폭신한 의자가 있고 카펫이 깔려 있다면 아마 누구든 잠시 쉬었다 올라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간에 자연스럽게 얼굴도 익히게 되고 서먹한 이웃은 없어짐은 물론 공동체의 유대감도 생길 것이다.

브라질에는 어떤 아파트이거나 일층의 공간은 화초를 드리우고 그림을 걸고 안락한 쇼파를 배치한 주민전체를 위한 응접실로 아늑하게 꾸며져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올때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쉬며 얘기도 서로하고 또 집에까지 모실 필요가 없는 낯선 방문객도 만나며 유용하게 모두가 이용한다. 일층 공간이 응접실을 꾸미고도 남는 곳은 주민이 모여 파티를 열수있는 방이며, 탁구대가 있는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작으나마 마당 한구석에 수영장도 있어서 주민마다 내집이라고 이름지은 공간외에도 우리 모두의 공간이 있어서 아파트 생활의 답답함을 덜어 줌은 물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 하

겠다.

도시의 인심이 사납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각박하게 사는 것은 대도시 공통의 현상이다.

한지붕 아래 살면서 좀처럼 이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성격나름의 탓도 있겠지만, 마음을 터 놓고 만나 웃고 얘기할 공동의 모임도, 모임 장소도 없는 환경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장소가 있으면 사람은 모인다. 모이면 대화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웃간의 보이지 않는 담이 허물어 질 것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인사도 없게 되어 서먹한 이웃은 없게 될 것이다.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것이 없지 않은가 살아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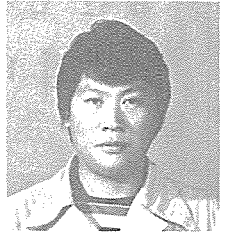
건축가의 크나큰 꿈과 이상이 예술을 이끌어 나갔었다. 꿈과 이상을 실현시킨 도시, 우리는 거기에 살고 싶다.

언제나 예술사를 통해 새로운 이념으로 다른 조형예술의 선봉에 섰던 건축, 비좁은 현대 도시공간에서 수직의 위용으로 대지와 인간위에 균립하는 자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 내부 공간에서만은 인간을 위한, 인간을 풀어주는 자세로 임했으면 싶다.

거의 브라질 전역을 돌아 보면서 건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지만 대지와 인간과 화합한 브라질리아 카테드랄성당은 경이로왔다.

투명하고 해맑은, 단순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창출해 낸 그 효과는 내게 있어서는 천상적 신비를 지상에 구현시킨 고딕적 이념을 뛰어 넘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삶을 위한 도시공간이 되었으면..



이 두 식
홍익대학교수(서양화)

우리가 흔히 건물이라 함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그밖의 다른 목적으로 지어 놓은 집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먼 옛날 동굴에서 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의 거주지는 오늘에 와서 몇 십층이 넘는 높은 빌딩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결국 오늘의 과학문명을 만들었고 오늘의 즐비한 고층 빌딩까지 세우게 되었다. 물론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관만이 아닌 실내 공간까지 세밀하고도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써서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기에 건축가가 있고 대학에서도 건축과가 있어 전문인을 양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편안함과 편리함 만이 우리네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매일을 보면 회색빛 건물에서 검은 아스팔트로 이어지는 생활반경을 쉽게 벗어 날 수가 없다. 높다 높은 빌딩 사이에 갇혀진 기분을 결코 떨치지 못한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야 하늘이 겨우 보이고 검은빛 아니면 회색빛이 주로된 빌딩의 벽에 우리의 시선은 갈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녹색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더욱 더 도시의 색깔은 무채색일 수 밖에 없다. 좁은 땅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하늘과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라도 아니요, 주차시설도 못갖출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녹색의 꽃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않냐는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서도 몇가지 아쉬운 것은 몇몇 지역에서 라도 스카이·라인을 의무적으로 낮춘다든가, 도심 한가운데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 빌딩과 호텔등을 그대로

인가해 주는 도시행정에의 불만이다.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매연의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테니까 말이다.

요즘은 건축법이 다소 바뀌어 건물 설계비의 몇 퍼센트인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조각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것이 무척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 역시 형식적인 눈가림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전문적인 미술가를 통하지 않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여러가지 편법이 무척 성해질 우려가 있어 좁은 공간에서나마 우리의 숨통을 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까 두렵다. 도시 미관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은 색채의 빈곤이랄 수 있겠다. 옛부터 우리의 눈은 몇몇 제한된 색상에만 익숙해져 밝고 호화로운 색깔에는 왠지 모르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년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도시벽을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하는 슈퍼·그래픽이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 표정 없는 도시에 생기가 더해감은 물론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 편하게 하며 편한것은 참 좋은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고 또 늘 대하는 건축물도 이렇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 눈에 와 닿을 수는 없는것일까? 검은 회색빛으로 일관된 건물의 그 거대한 몸체가 우리 눈을 위협하는 횡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인가?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볼 수 없을 지라도 밝은 하늘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은 어떠한 것일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축행정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인간」에 대한 고려가 더욱 더 있길 바랄 뿐이

다. 인간을 위한 공간이 인간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과도기적 발전을 해왔기에 이젠 정말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때 인것 같다. 우리의 거주 공간이나 건물도 이제는 단지 의, 식, 주의 해결 공간이 아닌 가치있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간이길 바래 본다.



建友社發行
값 15,000 원